

입니다만 에이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치가 많이 개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의 희생자, 고통을 받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무력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또 다른 예로서는 혈우병이라든지 에이즈와 같이 사람을 표현할 때 의학적인 상태로 사람을 규정하는 그런 거라든지요. 이런 부분보다는 보다 삶을 강조하고 생산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말이 어떨까요. 영어로도 초기 용어와는 달리 "PERSON WITH HIV", "PERSON LIVING WITH HIV", HIV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면서 이런 말을 우리 표현으로 적당하게 바꿀 수 없을까 생각해 봤지만 제 머리 속에서는 퍼

오르지 않았습니니다. 왜 적당한 표현이 없는가, 적당한 표현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수용할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번째로는 용어를 엄정하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에이즈 환자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도 지적돼야 할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에이즈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

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노력은 물론 이미 감염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서도 안되고 평등하게 대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방침 중에 그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그리고 그 효과가 심히 의심되는 부분, 단지 전시적이고 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마지못해 절충적으로 해나가는 부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제 다음 분들을 통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러한 지적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A

## 에이즈 관리에 대한 시민의 입장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에이즈는 예방할 수 있는 거라는 데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감염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정광모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빨간** 간색이라는 것은 늘 상대방에게 주의, 경고 뭐 그런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신호에 빨간 게 떨어지면 서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법원에서 차압을 당할 때 빨간딱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군인을 나갈 때 소집명장도 빨간딱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적십자의 뜻도 있습니다. 결사대

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세상 조심하면서 살고 남에게 조심을 준다, 자기도 결사대의 뜻으로 좋은 일도 하고 남에게 좋은 일도 강요한다, 뭐 이런 빨간색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정광모 보실 적에는 그 빨간 옷도리 일 잘하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에이즈라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냐.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염자에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느냐, 어차피 사형선고는 받은 거다. 그런데 그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쓸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고독하게 투병하지 않도록 해주



‘여러분들이 다음에 정광모 보실 적에는 그 빨간 옷도리 일 짧하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 되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개회식에서 감염자들을 도와주는 호스피스를 훈련시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것이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있는 의사나 봉사자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호스피스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외국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문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황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에이즈는 예방할 수 있는 거라는 데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감염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감염자가 왜 얼굴 내놓기를 싫어하느냐 시민들의 책임입니다**

사회자가 아까 당부를 드렸습니다. 사진을 찍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에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얼굴 내놓기 싫어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뜻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내놓고 나온 오늘의 감염자는 나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이고, 감염자를 너무 쓸쓸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호소도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염자가 왜 얼굴 내놓기를 싫어하느냐는 것은 시민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것이 물결치듯이 몇분내에 전국을 돌립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 사람들을 피합니다. 격리하고 싶어집니다. 정확한 감염경로도 모르면서 그냥 얼굴만 봐도 걸리는 줄 알고 피해다니다

보면 이런 비극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에이즈에 걸렸다 했을 적에는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성생활이 문란해서 하늘이 준 재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가지 경로로 자기와는 상관없이, 잘못하곤 상관없이 그렇게 걸린 감염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 왔는가.

지금 아무리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감염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감염자들이 모인 어떤 바깥은 데를 갔습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슬금슬금 다 나갑니다. 특히 저 같이 얼굴 팔린 사람은 아 뭔가 취재하러 왔다, 그래가지구 다 피합니다. 만일 그곳을 두번 세번 접쳐가면 그들의 소위 아지트, 그들이 그나마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질까봐 제가 거기를 못갑니다.

## 머리 까만 여러분이 많이 오셨다는 것을 좋아하는 WHO 대표분

여러분들은 적어도 시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흔히 암환자의 말 기현상같은 것이 에이즈환자의 검사결과와 통고입니다. 암환자는 우리가 피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다가 에이즈에 걸렸다. 대부분 이혼을 하거나 쉬쉬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또 가족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행방불명 되거나 그렇습니다. 부부가 왜 헤어져야 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하며 아까 직장께서 말씀하신 그 에이즈의 노이로제에 걸려서 결국은 어린 딸을 죽여야 했는가. 모두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에이즈에 대한 상식이 어설퍼서, 공포증에, 노이로제에 죽었다가 아니라 된가 사회의 어느 구석에 가서는, 거기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에이즈환자의 호스피스 노릇하고 싶다고 용기있게 나올 분은 몇 분이나 있겠느냐. 머리 희끗희끗하고 이제 몇 년 살지 못할 테니까 그 일이라도 하다가 죽

겠다고 아니라, 머리 까만 여러분이 많이 오셨다는 것을 좋아하는 아까 WHO 대표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젊을 수록 더욱 좋다. 그것이 사회공부하는 거고 사회정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100% 대답이 나올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입방아 잘 찧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데는 다 통용돼도 좋지만은 이 에이즈 감염자에게 만큼은 입이 무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쯤 생각을 해보 주십시오. 감염자를 국가나 혹은 이런 민간단체에서 아주 성의껏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느냐,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YES 해 주십시오. 하는데 열심히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나라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감염자하고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겠느냐, 싫다, 일본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 다음 독일, 미국, 불란서도 있고, 우리나라에 열심히 치료해 주어야 하겠느냐, 그렇게 해 주십시오. 100% 대답이 나올 자신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인데 우리가 우리 세금 들여서 왜 고쳐주느냐. 그러

면 그 사람들과 같이 직장에서 일하겠느냐, 싫다, 기분 나쁘다. 물컵 같이 마시는 거 싫고, 화장실 좌변기 같이 쓰는 거 싫고, 남들이 에이즈 환자와 같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당장 그만두라고 할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식을 바꾸자는 것이 오늘의 모임입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있으면 이젠 얼굴을 내놔야 합니다. 얼굴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예방을 못시킨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하로 들어가서 점점 감염시킨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때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미국 뉴욕의 거리에서 감염자가 지나가는 여성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감염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라도 안하면 정부가 정신을 안차린다. 몇 사람을 희생시켜도 좋으니까 정부가 에이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다.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의 희생이, 그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예방시킬 수 있었고, 비감염자로 만들 수만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극적인 지독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정부가 일어서질 않는다.

다행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윤리, 도덕이 있고 일부일처제로 잘들 살고 있고, 지난번에 그 교사두요 사실은 태국에 가서 여자하구 잤다구요. 잤는데 반점이 생기고 열이 나니까. 그리고 자기 딸도 반점이 생긴다. 아 이것도 틀림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태국에 여행을 가서 오입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 없지 않았겠느냐. 우리

예방가능한 것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니까? 이 예방은 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간호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호스피스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에이즈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에이즈 감염자가 적은 나라로 만드는 데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가 하나님께서 일대일로 살아라 했으면 좀 부족하더라도 일대일로 살자. 거기서 그냥 조금 삐뚤로 살짝 바람편 것 때문에 온 세상에 비극을 초래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감염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감염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여기서 이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서는데요, 한국은 비감염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감염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내놓지 않고 통계가 제대로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 에이즈는 교육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처럼 다섯살 때 이미 에이즈라는 얘기는 해주지 않지만 청결한 생활과 청교도 정신을 집어 넣습니다. 10살이 넘으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고 성교육을 시켜줍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자기가 에이즈 감염

자인지도 모르면서 성욕구 충동이 나면 어린 소녀, 소년을 폭행하는 경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어린이들이 뭘 알아서 성폭행을 당해야 합니까? 어린이에게까지 우리는 충분한 성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예방가능한 것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니까**

여러분들이 예방책에서 사실 다들 아시는 거지만 저는 소비자교육을 하면 미장원에서 함부로 귀뚫지 말아라. 일회용으로 충분히 소독을 해라, 매니큐어 함부로 하지 말아라. 조금 피가 비치면 그 매니큐어 하는 거 일일이 소독하는 거 아니니까 걸릴지도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니까 외국에서 교통순경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팔 끝까지 올라오는 고무장갑을 끼고 피가 철철 흐르는 교통사고환자들을 안고 가더라고요. 피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행여나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일지도 모르겠다는 것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적에 길에서 혹시 누가 코피가 터지거나 때리고 싸우다 피



차장에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를 흘리면 닦아주지 말아라. 그냥 손수건을 쥐서 닦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방가능한 것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니까. 이 예방은 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간호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호스피스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에이즈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에이즈 감염자가 적은 나라로 만드는 데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A



축사 중인 UNDP 주한대표 Kyaw Lwin Hla



사회에 본협회 김준영 운영위원장